

21세기 초인류 안전전문기관을 목표로 변신

한국산업안전공단 / 박길상 이사장

박길상 이사장 주요경력

- 서울대학교 졸업
- 노동부 근로기준국장
- 노동부 고용정책실장
- 대통령비서실 노사관계비서관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 노동부 차관

21세기 초일류 안전전문기관을 목표로 변신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산업안전공단 박길상 이사장으로 부터 2006년도 건설재해 예방사업 추진방향과 제39회 안전보건강조주간행사의 역점 사항 등을 들어본다.



Q 먼저 본지와 인터뷰를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발생현황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지요?

A 최근 들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한해 2,500여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고 있는 등 심각한 실정입니다. 최근 10년간 산업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는 모두 26,037명으로 한해 평균 2,600여명이 사망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 같은 수치는 매일 7명 이상의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있는 셈입니다.

산재로 인한 사망재해의 심각성은 교통사고와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2005년 통계의 경우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2,493명,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6,376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산업재해가 1,047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교통사고가 4,800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함을 감안할 때 1만 명당 사망자수에서 산업재해가 2.5명, 교통사고가 1.3명으로 나타나 산업재해가 교통사고보다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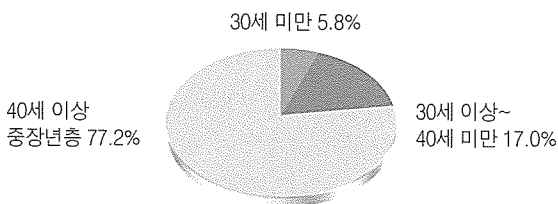
특히, 산업재해 사망자의 대부분(77.2%)이 중장년층으로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점에서 가족 해체나 사회구조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심각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로 인한 직·간접적인 경제적 손실액은 15조 1천290억 원(2005년 기준)으로 인천국제공항(총공사비 7조 8천억)을 2개 더 건설할 수 있는 금액이며 2006년 일반회계기준 정부예산(144조)의 약 10% 규모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이와 같은 손실액은 연봉 2,000만원 상당 근로자 75만 명을 신규 고용할 수 있는 기회가 산업재해로 인해 사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우리경제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사회구조를 선진국 형으로 변모시키기 위해서는 산업현장의 안전문제야말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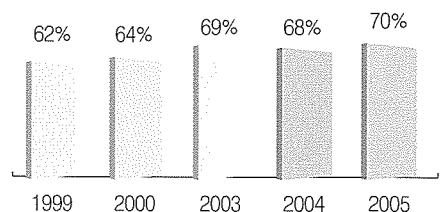
Q 산업재해 발생의 70%가 50인미만 소규모사업장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이를 위해 ‘클린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성과와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A 질문한 바와 같이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이 전체재해의 70% 차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 시설 개선능력이 미흡하고, 안전보건 전문가 부재, 안전보건 기술력 부족과 안전보건 투자여력 부족, 유해·위험 공정이 많아 재해발생 위험이 상존해 취업기피의 원인이 되는 등 우리경제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별 산업재해 사망률 분포



50인 미만사업장 재해 발생현황



이에 산업안전공단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2006년도 영세소규모 사업장 10,000개소에 1,000억 규모의 자금을 지원해 '구직난 속 구인난'을 겪고 있는 이들 사업장의 인력난과 경쟁력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떠나는 일터에서 돌아오는 일터'로 만들기 위해 클린사업을 금년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Q 이사장께서는 올해 초 공공기관으로는 파격적인 수준의 인사 및 조직에 대한 혁신을 단행한바 있으며, 얼마 전에는 공단의 비전과 미션을 명확히 하는 경영전략체계를 새롭게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롭게 구축된 경영전략체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다면

A 올해 초 한국산업안전공단은 공공기관에 만연된 연공과 서열문화를 타파하고 직급과 직렬에 관계없이 업무성과와 역량을 중심으로 뛰어난 인재를 발탁하고자 조직과 인사 분야에 대한 혁신을 단행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상하·동료 간의 경쟁을 유도, 경쟁력을 높이고 산재예방 고객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내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인력활용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 본부 정원의 16%를 일선기관에 전환배치
- 일반 행정지원 조직을 현장 사업부서로 전환
- 총 20개 팀을 감소하는 조직의 구조조정을 단행

※ 본부 12실국 21개 팀 → 9실국 17개 팀으로 축소

※ 일선기관 팀 수 110개 → 97개로 축소

또한 직급·직렬 간 영역을 없애고 상하·동료 간의 경쟁을 유도해 공단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재예방 고객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했으며, 조직 및 정원 운영권을 일선기관장에 위임함으로써 현장의 책임경영체제 기반

을 마련했습니다. 공단은 이번 혁신을 계기로 '고객중심의 기업형 경영마인드'를 조직, 인사 등 경영 전 분야에 접목시켜 상시 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에 공단이 마련한 경영전략안의 핵심은 '고객'입니다. 고객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 신뢰받는 산재예방전문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을 공단의 비전으로 설정하였고, 공단의 고유 가치이자 경영원리를 △생명존중 △전문성 △창의력 △고객중심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제 한국산업안전공단은 비전을 실현시켜 내부 구성원이 즐겁게 일하고 고객이 행복한 산재예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궁극적인 공단의 미션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킨다.'를 완수하기 위한 경영목표로

-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산재예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객감동의 예방기술 지원'
- 고객의 관점에서 미래 수요에 대응할 안전보건 전문사업을 개발 전개하기 위한 '고객수요의 전문사업 확충'
- 고객을 감동시키고 고객수요에 대응할 내부역량을 키우기 위한 '고객중심의 조직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Q 앞서 말씀하신대로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는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중 건설현장에서는 그 어떤 분야보다 사망재해 등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설재해예방대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건설업은 대부분의 작업이 옥외에서 이뤄지므로 산업의 특성상 재해발생 위험이 그 어느 업종보다 높은 실정입니다. 특히 협력업체 일용직 근로자등인 외국인, 고령근로자들이 현장에 집중적으로 투입됨으로써 이들 근로자들에 대한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통계를 살펴보면, 금년도 1/4분기의 경우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이 전년대비 6.6% 감소와 건설현장에 대한 집중적인 재해예방노력에도 불구하고 재해자와 사망자가 각 13.4%, 2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건설재해 발생현황			
구 분	'06. 1/4분기	'05. 1/4분기	비 고
재 해 자	3,386명	2,986명	13.4% 증가
사 망 자	138명	112명	23.2% 증가

이에 따라 산업안전공단에서는 건설현장재해예방을 위해 공사규모별 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장마철, 해빙기, 동절기 등 취약 시기별 재해예방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형 건설업체의 자율안전관리활동 지원과 건설안전 교육 및 기술자료 개발 보급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재해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3억 미만 소규모 영세건설현장에 대해 소규모 건설업체 및 현장 대상 안전·보건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영세 소규모 현장 기술지원시 개구부, 작업발판, 비계 등 추락재해 3대 요소에 대한 집중기술지원을 통해 기본적인 안전 활동을 유도해 장마철, 해빙기, 동절기 등 취약 시기별 건설현장 안전 활동을 전개 중이며 장마철, 해빙기, 동절기 등 취약시기별 붕괴, 감전, 추락재해 위험요인 사전 제거 등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3억원~120억원)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 전시회에서 연설중인 박길상 이사장

또한, 대형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대형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고층건축물, 교량 등 5개 공정에 대해서 공사 착공 전에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및 근로자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유해 위험 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검사 철저 실시와 SOC 건설현장의 경우 노·사가 사전에 유해·위험을 발굴·제거하거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자율안전 활동 정착을 위해 『노·사 참여 재해 예방 프로그램』을 작성 하고 시행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Q 매년 7월 첫 주는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입니다. 올해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준비한 주요 행사에 대해 말씀하신다면

A 정부는 산재예방에 힘쓴 유공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첨단 재해예방 기계·기구의 사업장 보급과 안전보건 기술과 정보의 교류를 통해 산재예방을 위한 범국민적 안전의식 제고와 '산업안전보건의 봄' 조성을 위하여 지난 '68년부터 7월 첫째 주를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39회를 맞은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에는 7월 3일부터 7일까지 서울 삼성동 소재 코엑스(COEX)에서 산업안전보건대회, 국제 안전기기 전시회, 분야별 기술 세미나, 발표경연대회, 학회워크숍 및 논문발표회, 산업보건 분야 국제 컨퍼런스, 안전보건 비디오 페스티벌 등 다양하고 풍성한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특히, 2008년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를 대비한 사전 리허설 성격으로서 전체적인 내실을 통한 행사의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안전은 생명입니다.' 라는 슬로건 아래 일자별 주제를 정하여 그날에 맞는 세미나, 발표대회, 학회워크숍 등을 배치하였으며 안전보건의 고품격 지식 제공을 위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기술세미나·발표경연대회·학회워크숍 및 국제 컨퍼런스 등을 유치하였고, 대학(원)생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활발한 지식활동을 위한 논문발표회를 신설·개최 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관련학회들이 대거 참여(안전학회 등 5개 학회)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수준 높은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할

구분	주제	
캐치프레이즈	안전은 생명입니다 (근로자의 안전, 기업 성공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일자별 주 제	1일차	예방 시스템, 생명을 지키는 열쇠
	2일차	사람이 경쟁력이다 - 안전 활동의 중심은 근로자
	3일차	안전·보건은 기업과 근로자의 가치 창출
	4일차	국경 없는 예방 활동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5일차	기술의 변화, 안전 활동의 변화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국제 안전기기 전시회는 안전 보건 관련 최첨단 제품·기기는 물론 안전을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관, 비디오페스티벌 등 안전보건 관계자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Q 아무쪼록 안전보건에 관심 있는 관계자, 학생, 일반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통해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우리사회 안전 수준을 한 단계 Up-Grade 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국제안전기기전시회가 눈에 띄는데, 이번 전시회의 의의와 볼거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Q 오는 2008년 서울에서 세계산업안전보건 대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IOC회의도 열렸는데 제18회 대회 준비상황과 행사내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2008년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 준비를 위한 제1차 국제조직위원회(IOC)회의를 지난 5월초에 개최해 세계대회의 모토, 주제, 대회 개최장소, 대회기간, 공식 사용언어, 대회 운영기본계획, 공식 홈페이지, 동시통역 방법 등 대회개최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을 심의·결정하였습니다.



2005년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에서 연설중인 박길상 이사장과 전시장 광경



A 최근 통계에 의하면 연간 650여명이 개인 보호 장비 미착용 및 안전방호장치 설비 미비로 사망하는 등 보호구 및 안전장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제안전기기전시회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의 첨단 안전보건관련 기기와 장비들을 전시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안전보건관계자에게는 선진 재해예방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기기 및 보호구 생산업체에게는 기술교류를 통한 경쟁력을 높이며 일반시민들에게는 생활 속에서 안전보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개최시기 : 2008년 6월 29일 ~ 7월 2일(4일간)
- 개최장소 : 대한민국, 서울, 코엑스
- 모 토 : "산업안전보건 : 사회 각 주체의 책임"
(Safety and Health at Work: A Societal Responsibility)
- 주제
 - 미래를 위한 안전보건 전략과 프로그램
(Strategies and Programmes of Safety and Health for the Future)
 - 작업조건 변화가 근로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Impact of Changes in Working Conditions on Workers' Protection)

- 산업안전보건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
(New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 안전보건관리체계(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s)
- 대회 심볼마크(Symbol Mark)



심볼마크의 모티브는 한국전통 태극 문양을 응용하여 제작하였으며, 전 세계의 안전보건관계자가 참여하여 정보를 교류하는 의미에서 지구 중심으로 아치의 두 가지 색상을 안전보건으로 형상화함과 동시에, Congress의 첫 글자인 'C' 자를 사용함으로써 세계대회의 의미를 부각하였음.

제18회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의 주요행사로는 안전보건대표자회의(Safety and Health Summit), 기술세션(Technical Sessions), 심포지움(Symposia), 대륙별회의(Regional Meetings), 국제안전보건기기전시회(International Safety and Health Exhibition), 포스터 발표(Poster Sessions), 국제필름 및 멀티미디어 페스티벌(International Film and Multimedia Festival)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Q 바쁘신 중에도 인터뷰에 응해 주신 박길상 한국산업안전공단 박길상 이사장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 되어 좋은 성과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전국의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끝으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A 세계적 우수 기업들의 공통점은 CEO의 적극적인 관심 속에 '안전보건활동이 잘 되는 기업'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안전경영을 손실 방지, 인적자원의 보호, 노·사관계의 개선, 기업 이미지 및 신뢰성을 제고하는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단 한 번의 안전사고와 직업병으로 기업의 생존이 위협받는 사례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건설현장의 붕괴로 기업의 이름을 바꿔 달아야 했던 경우와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직업병에 걸려 회사의 문을 닫았던 안타까운 일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은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인간 가치의 최고선입니다. 따라서 경영인은 안전보건경영을 통해 근로자가 일터에서 다치거나 직업병에 걸리지 않도록 확고한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아울러, 산업현장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의식변화도 필요합니다. 근로자 스스로 '내 소중한 생명은 나 스스로 보호 한다' 는 의식 아래 안전수칙 준수와 보호구 착용, 정리정돈 등 안전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안전의 생활화가 필요합니다. 산업재해예방은 이러한 노·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 그리고 공단의 지원이 합쳐질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인터뷰 기회를 갖게 해주신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환경보 회장과 관계자 에게 감사드리며,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와 협회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박길상 이사장 프로필(한국산업안전공단)



Park, Kil-Sang

박길상(朴吉祥)

- ★ 학력
 - 1976. 2 서울대학교 졸업
- ★ 주요경력
 - 1975 행정고시 17회 합격
 - 1988. 2 노사협의과장
 - 1996. 5 노동부 노동국장
 - 1999. 7 산업안전국장
 - 2001. 5 대통령 비서실 노사관계비서관
 - 2002. 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 2003. 3~2004. 9 노동부 차관
 - 2005. 5. 17 現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
- ★ 수상실적
 - 1984. 10 대통령 표창
 - 1997. 12 황조근정훈장